

금호타이어, 3/4분기 경영도 부진

한국증권, 천연고무 가격급등에 자동차 파업 ... 영업이익률 3.3%

한국투자증권은 10월2일 금호타이어가 2/4분기에 이어 3/4분기에도 부진한 실적을 내놓을 것이라며 목표주가를 1만5000원에서 1만4200원으로 하향조정했다.

서성문 애널리스트는 “6-7월 천연고무 가격 급등, 예상보다 길었던 완성차기업 파업 등으로 3/4분기 추정 영업이익률은 2/4분기와 같은 3.3%에 그칠 것”이라며 “2005년 3/4분기 6.2%에 비해 크게 악화되는 것”이라고 말했다.

또 “더욱이 세계 경기 둔화로 타이어 수요 전망이 어두운 편이며, 16-17인치 초고성능 타이어(UHPT) 시장 경쟁도 거세지고 있다”며 “이를 반영해 2006와 2007년 주당순이익(EPS) 전망치를 각각 31.8%, 18.5% 내리고 목표주가도 낮춘다”고 설명했다.

다만 서성문 애널리스트는 “천연고무 가격이 7월 초를 고점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며, 4/4분기에는 중국 공장 수출대행 물량이 늘어날 것”이라며 “펀더멘털도 점차 개선될 것”이라고 전망했다. (서울=연합뉴스 김상훈기자) <저작권자(c)연합뉴스-무단전재·재배포 금지>

<화학저널 2006/10/02>